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 · 변동금리 뭘로 해야하나

“이자부담보다 대출규모 · 상환계획 등 꼼꼼히 따져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섭게 뛰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2%대 금리가 사라진지 오래고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내년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출기간이 1~2년의 단기대출이라면 변동금리, 3년 이상의 중장기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4대(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10년 이상 장기대출) 평균 금리는 3.3%~4.8%다. 9월 말(2.74%~4.70%) 대비 0.5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변동금리는 9월 2.57%~4.35%에서 11월 말 2.8%~4.5%로 0.20%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상승폭이 큰 이유는 채권금리의 영향이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시장금리 가운데 하나인 금융채 5년물과 연동된다. 실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트럼프 당선 여파로 국내 금융채 5년

물 금리는 11월 한 달 동안 0.4%포인트 넘게 뛰었다. 또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가금리를 올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 3차례 가량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당장은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게 이자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가 불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만기 등 자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미국 금리인상에도 경기둔화 우려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한국은행이 곧바로 금리인상을 추동하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때문에 대출 후 1~2년 안에 상환 계획이 있는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로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만기가 3~5년 이상으로 긴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나을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당장의 이자부담만을 고려하기 보단 대출 규모와 상환 계획 등을 꼼꼼하게 따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인터라인 판매시작

홍콩-치앙마이 노선 연계 상품
20KG 무료 위탁수하물 혜택도

이스타항공이 21일 유플라이 얼라이언스를 통한 한국 LCC 최초 인터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홍콩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LCC 동맹 연합체인 U-FLY Alliance에 공식 가입한 후 약 5개월 간의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인터라인 노선을 운영하게 됐다. 인터라인 노선은 기존 이스타항공의 인천-홍콩 노선과 홍콩 익스프레스가 운항하고 있는 홍콩-치앙마이 노선을 연계한 상품이다. 현재 인천-치앙마이 직항노선은 외항사와 국내 대형항공사에 취항하고 있으며 국내 LCC는 취항하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 인천-홍콩-치앙마이

노선은 항공운임 최저 17만4,000원(편도/ Tax 별도)부터 제공되며, STOPOVER 횟수 제한 없이 최대 15일간 홍콩체류가 가능해 다구간 여정 계획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 이스타항공 인터라인 전용 카운터에서 발권이 가능하며 20KG의 무료 위탁수하물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130여 만 명의 방문 중국인관광객을 수송하며 국내 LCC 중 최대 중국노선 운항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이번 인터라인 판매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상호 항공사들 모두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과 현대카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JB금융지주 본사에서 현대카드 우수회원 전용 신용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은행-현대카드, 신규 대출상품 출시 업무협약 체결

카드대출 서비스 편리함 · 은행권 저금리 상품 제공

전북은행과 현대카드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JB금융지주 본사에서 현대카드 우수회원 전용 신용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많은 서류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은행권 대출의 경우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높은 금리가 적용되거나 아예 대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과 현대카드는

기존 신용대출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 출시될 전북은행 상품을 통해 현대카드 우수회원들은 카드대출 서비스의 편리함과 시중은행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예정이다. 이번 제휴는 양사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전북은행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상품을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됐으며, 현대카드 역시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은행권의 저금리 상품 제공과 고객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다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양사 간 협업으로 은행 대출이 필요했던 고객들은 여러 금융 기관의 대출 여부를 알아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의 우수한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현대카드와 함께 내부 전달 조직을 구성해 연계 영업을 효율화하고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장동우체국 26일 개국

혁신도시에 위치한 전주장동우체국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전주장동우체국은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우체국시설(365자동화코너 포함), 2층은 임대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자는 “이번 전주장동우체국 개국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품질의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농진청, 닭 · 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 나서

농촌진흥청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육 소비 위축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지원과 유통 중인 가금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닭 · 오리고기 소비 촉진 운동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본청 및 4개 소속기관 구내식당은 닭과 오리 등을 이용한 메뉴를 주 2회~3회 이상 식단에 반영해, 월 4,300kg, 2,020만 원 상당의 가금류를 소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과 위험지역 내 닭 · 오리 뿐 아니라 종란 · 식용란까지 이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감염된 고기나 식용란이 유통될 우려가 없다. 진경성 과장은 “닭 · 오리고기 소비 촉진으로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재용 기자

농작물 ‘생명체 설계도’ 해독

농진청, 고구마 · 양파 · 도라지 등 9종 맞춤형 품종 · 의약품 소재 개발 가속화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10개 산학연 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가치가 큰 우리 농작물 9종의 ‘생명체 설계도’인 유전체를 세계 처음으로 해독했다. 이번에 유전체를 해독한 작물은 고구마, 양파, 국화, 도라지, 결명자, 잎새버섯, 만가닥버섯 등 총 9종이다. 유전체 해독으로 이들 작물의 유전자 수, 위치, 구조 등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농작물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이들 작물이 가진 각종 기능성 물질을 가공식품, 의약품 등의 소재로 개발하는데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첨단 장비를 이용해 해독한 9종의 유전체 크기 총합은 인간 유전체 크기(3기가베이스(Gb), 30억 쌍의 염기)의 약 7배에 달하는 22기가베이스이고, 발굴한 유전자 수(인간은 약 2만개 내외)도 39만 개에 이른다. 이로써 농촌진흥청은 그간 유전체 크기가 커서 국제적으로 난제였던 거대 유전체 해독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발굴한 유전자의 지식재산권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저장해 국

내 산 · 학 · 연이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분야로는 고구마, 양파, 국화의 수확량 증대, 저장성 개선, 병해충 저항성 향상, 배의 딱딱한 씹는 맛을 내는 식세포 감소 등 품종 개선 분야를 들 수 있다. 또한, 들깨의 고품질 오메가3 지방산 함량 증대와 도라지, 결명자, 버섯에 풍부한 항암 · 항염 · 항산화, 성인병 예방 등의 약리성분을 식품이나 의약품 · 화장품 소재로 개발하는 분야의 실용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작물, 가축, 곤충 등 20품목 유전체를 추가적으로 해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장승진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이번 유전체 해독 성과는 IT산업의 기초기반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가공식품, 의약품 등 후방 산업에서도 우리 고유의 농업생명 소재를 활용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부안

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